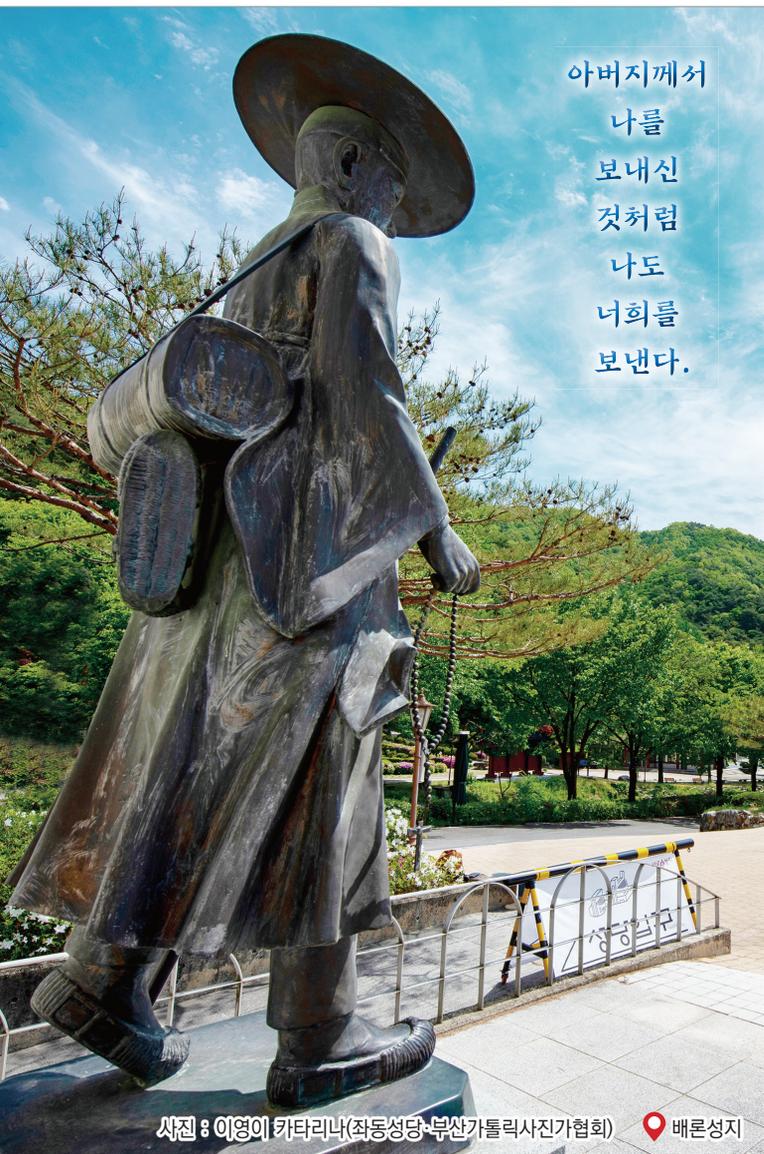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진 : 이영이 카타리나(좌동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배론성지

**입 당 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 1 독 서** 사도행전 2,1~11

**화 답 송** 시편 104(103), 1ㄱ과 24ㄱ, 29ㄴ, 30.31과 34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2.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3.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 서** 코린토 1서 12,3ㄷ~7.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부 속 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배우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2022년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2)

### 3.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부의 문제든, 청소년 그들이 겪는 문제든 간에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사태를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람차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이 무슨 재미로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재미가 없다’는 말은 꼭 세속적인 재미가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기피하고, 이런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대화와 기대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납니다. 곧, 기쁨과 매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 환경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 ① 우선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 ②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사목자들이 청소년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 중심이고 교육자 중심의 주입식 가르침과 획일화된 방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향하여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본당의 사목자들의 인사이드 때마다 본당 공동체의 모든 사목 형태(전례, 본당 행사, 각 부서의 예산 편성 등)가 바뀌니, 본당마다 청소년 사목이 체계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11항)
- ④ 청소년 사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투신하는 평신도 교리교사들의 양적·질적 문제와 교리교사 교육과 양성

의 한계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 주일학교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교사가 되었다고 해도 2-3년 사이에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본당에서 주부 교사들로 대체합니다. 생활이 바쁘고, 교사 연수 기회는 적으니 올바른 교리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교리 시간이 교리가 아니라 놀이와 다른 주제 위주로 되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교리시간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잃고 주일학교를 기피합니다.

- ⑤ 또한 전통적 신앙의 형성과정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신앙의 대물림은 매우 심각합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유아세례’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영적 세속성’과 지나친 교육열,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모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 ⑥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나아가고, 저출생 영향 등의 사회 문화적 요인과 사회의 여러 유해한 환경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 ⑦ 본당에서 초·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청년회’라는 단체활동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지니고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자신들을 ‘육체적 봉사자’로서 기능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본당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일반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목적 공간이나 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67항)

### 4.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들이 그들이 떠난 교회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도움 등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느

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나 기회 혹은 방법을 안내하거나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체험'은 각자의 몫, 즉 주관적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목을 회복하려면, 한두 사람의 교회 책임자, 성직자, 수도자만이 나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의 사명은 ‘이 시대의 불확실성 앞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 영적 세속성을 극복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동반자 사목으로서의 역동성을 찾아가는 데에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86항) 그러므로 교회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 교사와 또래 친구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청소년 사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회와 사목자들이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 청소년들이 변화 없는 교회와 사목자들을 보고는 실망해서 다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스 쾅 신부님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교구에 몸을 담았던 신자들이 성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이것저것 다 해 보아도 성당에서 갖는 기쁨만 한 것을 만날 수 없어서 성당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신부는 이미 늙었고, 제단을 비롯한 성당 내부는 먼지가 자욱하고, 장식한 꽃은 시들어 기운을 잃었으며, 그렇게 훌륭하던 성가대는 해체되고 말아서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아쉬움을 달래며 향수에 젖어두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한 그렇게 좋던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부수기는 쉬워도 건설하기는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서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청소년 사목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영영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어찌면 많이 늦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온갖 것에 오염된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듯이, 텅 빈 교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온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 5. 당부와 기도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벗어난다 하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항 참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동반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자 하나이다.  
교회의 지금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기쁨을 일깨워주시어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되찾도록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청하나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매일 뿌리내리고 꽃피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을 양육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의 청소년들을 어머니의 품에 맡기오니  
청소년들이 신앙이 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  
하느님을 체험하며 교회를 이루도록 함께 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사명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 “오소서 성령님”

루카에 따르면 성령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으로(사도 1,4 참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립니다.(루카 1,4: 2,1 참조)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 구약 예언자들도 성령에 이끌려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루카 1,35 참조)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하셨습니다.(루카 4,1.14 참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창세 1,2 참조)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으며, 예수 승천 이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c)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c) 이렇게 보니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영,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는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사건이 일어난 지 오십 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하느님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시나이산 계약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파스카 사건으로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림으로써 예수님

파스카 신비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밖으로 나가 하느님 일을 하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두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시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교회는 오늘도 성령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내리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저희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온 세상을 당신 선물로 가득 채워주소서.”

**염 철 호**

사도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인류가 살기 위해선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한 희망하기 위해선  
성령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6.6(월)~7(화)  
염철호 신부(신학교정 운영본부장)  
6.8(수)~11(토)  
박세종 신부(남천성당 부주임)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6.5(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출연 : 조민형(음악학박사 피아니스트)

**사랑이 있는 세상**

6.9(목)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가성비극> 성녀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출연 : 정성호 시몬 신부(수영 보좌)



## 스승이신 혜진이를 기억하며

혜진이의 머리는 몸보다 훨씬 컸다. 선천적으로 '수두증'이라고 불리는 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였다.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순환 후 배출되지 않고 계속 남으면서 오히려 뇌는 물론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기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진이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수녀님들이 돌보는 '소화영아재활원'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간호대학에 입학하던 1989년,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한마음한몸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거나 더 가졌으니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내가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기도 하는 '관계'였다. 그것은 '함께 맞는 비'의 김수환 추기경님 버전이었다. 내 우산을 접고 잠시라도 당신이 맞고 있는 비를 함께 맞겠다는 것이다.

혜진이는 머리의 무게로 인해 목이 꺾어질 수 있는 아기였다. 그러나, 간호대생이던 나를 보자마자 재활원 수녀님은 얼씨구나 혜진이부터 내 품에 안겨 주셨고, 그렇게 나는 '진이 엄마'가 되었다. 그러나, 돌도 안 된 혜진이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성인 머리 크기 이상으로 커져갔다. 눈꺼풀이 당겨 올라가면서 눈조차 감지 못했다. 그러니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해 수시로 거즈에 물을 적셔 눈을 덮어 주어야 했다. 곁에서 자던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혜진이의 눈을 덮고 있던 거즈를 걷는 것이었다. 거즈를 들어 올리면 그곳에는 밤새 감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을 까만 눈동자가 있었다. 거기에는 온 힘을 다해 내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

혜진이는 '불쌍한' 아기가 아니었다. 소위 SKY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의미,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의미, '건강하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나아가서 '행복'과 '불행'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다. 평가하고 심판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함께 미소를 나누는 '관계'였다. 혜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혜진이의 형상으로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니, 잘 둘러보고 꼭 그분을 만나보시라. '사랑'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말이다.

▣ 박 선 정 헬레나

남천성당 · 인문학당 달리 소장  
whitenoise99@hanmail.net



### 공동의 집 들보기

## 고용 보호의 필요성

『찬미받으소서』 124항~129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7.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관상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으면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동은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128.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일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한 결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행동하는 또 다른 길 이 될 뿐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24항~129항 영상 보기  
낭독 : 가톨릭선교축구연합회 유재복 대건안드레아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 집안 청소를 할 때, 손걸레를 만들어 합니다.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교 구

예비신학생 월모임

중1, 중2, 중3 : 6.12(일) ZOOM을 통한 비대면 수업  
교2 : 6.12(일) 10:30 교구청 2층 성소국  
문의 : 629-8760 (성소국)

교구 혼인가좌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정성당, 울산대리구청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 (catholic-marry.or.kr)  
비고 :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직원 구함

주요업무 : 이주노동자 및 극빈자 관련 행정 및 회계, 간단한 통역, 병원 안내 등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주일 10: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 문의 : (052)201-6505(단, 울산광역시 거주 신자만 신청할 수 있음)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 미사

울산 : 6.7(화) 11:00 아음성당  
문의 : 782-0765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6.7(화) 11:00 · 중앙성당 대성전  
주례 : 이철희 지도신부 / 문의 : 466-2290

울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6.8(수) 기도 14:00, 미사 15:00  
· 복산성당 소성전 / 주례 : 이광우 신부  
문의 : (052)201-6505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부산 : 6.9(목) 10:30 우동성당  
양산 : 6.13(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6.14(화) 10:00 아음성당  
문의 : 600-8800

베아타그레고리오성기단 창단 22주년 기념미사

· 6.12(일) 10:30 · 복산성당  
단원모집 :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울산거주 남녀  
문의 : 010-6562-0577(단장)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8회 학술연구발표회

· 6.11(토) 14:00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2호 / 문의 : 519-0471  
1주제-드망즈 주교와 성유스티노신학교(김정희)  
2주제-1933년 천주교신학생 김필현의 유럽행 여행기 속 아시아 영유지 기록(윤선자)

가톨릭서예인회 제13회 부산가톨릭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6.13(월)~18(토) ·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층)  
개막식 : 6.13(월) 18:00  
문의 : 010-8542-3559(정명환 회장)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사무직원 구함

분야 : 사무 업무 전반(회계, 컴퓨터 활용)  
대상 : 세례받은지 3년 이상 / 연령 : 20대~40대  
서류 : 이력서 / 채용기간 : 채용시까지  
문의 : 646-3746, 010-6764-3746

소화영아재활원 관리기사(계약직) 구함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필수), 61세 이상  
문의 : 644-1729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성령 강림 대축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3.6.10.

이경우(가브리엘) 신부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코로나19 자선금 모금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23일~5월 29일] 소계 : 110,000원

염수미 50,000 공영옥 50,000 김성계 10,000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금 누계 : 943,599,334원

사용 누계 : 751,667,700원

잔액 : 191,931,634원

<p>(주) 씨피여행사</p> <p>www.cptravel.co.kr</p> <p>☎ 국제선항공권 : 010-3832-4106</p> <p>☎ 성지순례 문의 : 010-3837-6434</p> <p>☎ 하나투어 중앙동 : 462-5599</p>	<p>바름내과의원</p> <p>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열암,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p> <p>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메트로)</p> <p>지하철역 온천정역 1번 출구 150m</p> <p>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p>	<p>협성주단·한복</p> <p>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p> <p>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p> <p>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p> <p>646-1123</p> <p>010-3594-2137</p>	<p>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p> <p>정 경 우 (시문)</p> <p>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p> <p>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셀텀타워메디컬 2층</p> <p>744-8181</p> <p>상담 010-5616-8600</p>	<p>삼성내과 엠알영상의학과</p> <p>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p> <p>내과 전문의 8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검진 1명</p> <p>박인호(루카), 서수홍(라파엘)</p> <p>하단역 2번 출구 208-5566</p>
<p>법무법인 대한중앙</p> <p>(사무실 확장·이전)</p> <p>민·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민 (가브리엘)</p> <p>714-3681, 010-9594-2360</p> <p>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외우빌딩 2층</p>	<p>준요양병원</p> <p>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p> <p>상담, 문의 525-7711</p> <p>부산 동래구 인력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p>눈시원안과</p> <p>이현석(분도)</p> <p>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p> <p>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리섹, 드림렌즈</p> <p>631-6622</p> <p>범내골역 2번 출구 앞 제2향운병원 4층</p>	<p>덕천 길백외과의원</p> <p>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p> <p>원장. 박우일(요셉)</p> <p>331-8888, 8899</p> <p>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버게트 건물 6층</p>	<p>이콘 학교</p> <p>&lt;초급&gt; &lt;중급&gt; 모집</p> <p>4.5.6월 입학식 재료값 무료 혜택</p> <p>010-2963-5672</p> <p>민락성당 진귀은 엘리사벳</p>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 6.8(수) 13:00~15:00  
-금요일미사 (성령강림의 밤)  
· 6.10(금) 20:30~22:30  
-100단 목주기도회  
· 6.13(월) 12:40~16:0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6.13(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6.8(수) 20:00 대리구 별관  
-468차 교구성령목상회(일반)  
· 6.24(금) 18:30~26(일) 17:30  
회비 : 18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로사리오의집** 문의 : 010-7155-3498

-하느님의 자비신심 율피정(강의, 미사)  
·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6.11(토), 7.9(토), 8.13(토)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 매주 금요일 13:30~15:30  
미사,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부산가톨릭마라톤회 행사 안내**

[제16회 창립기념행사]  
· 6.11(토) 09:00 ·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마라톤훈련]  
· 1, 3, 5주(토) 동백섬 / 2, 4주(토) 대저생태공원 [정기산행] · 매월 1회 영남알프스 산행  
문의 : 010-3860-9727

**ME부산협의회 383차 ME주말**

· 6.24(금) 19:00~26(일) 17:30 · 마리아 피정센터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465-1010, 010-4130-4263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6.8(수) 10:00 · 월평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게재 기간** 2022년 7, 8, 9월 (3개월)
- ▶ **접 수** 5월 30일(월)부터 선착순 / 이메일 (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 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서 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 **광고신청서 다운로드**  
교구 홈페이지 - 우측 '광고신청서' 배너 클릭
- ▶ **문 의** 629-8752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6.9(목) 14:00 / 문의 : 634-4820, 636-4819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층 경당

**예수성심 부산친교회(재속회) 회원모집**

· 6.14(화) 09:30 · 장전동 성심영성센터  
모토 :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  
대상 : 만 60세 이하(견진성사 받으신 분)  
문의 : 010-3845-8599

**성분도어버이집(요양원) 조리원 구함**

조리원 1명(음식조리 가능하신 분, 자격증 무관)  
근무 : 2교대(06:30~15:30/09:00~18:00)  
기한 : 6.13(월)까지 이력서 제출  
문의 : 752-298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 6.12(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 010-3817-0567, 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6.11(토)~12(일) / 7.9(토)~10(일)  
3박 4일 : 6.16(목)~19(일) / 7.14(목)~17(일)  
8박 9일 : 6.27(월)~7.5(화) / 8.4(목)~12(금)  
40일 : 9.14(수)~10.23(일)  
·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한술> 국악성가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기준 :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  
지도사제 : 강수근 신부(국악성가연구소)  
문의 : 010-4932-5857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 8.26(금)~28(일) · 양산 영성의 집  
교육내용 : 국악미사곡, 전례곡 등  
지도 : 강수근 신부 / 참가비 : 25만원  
국민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신청 및 문의 : 010-2279-0255

**제17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6.13(월)~7.15(금)  
문의 : (02)460-7622(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http://www.cbck.or.kr (웹사이트 참조)

**신앙 안에서의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금요일 7.1(금)~ 토요일 7.2(토)~ 매주 2시간  
(10주간) 오전반 10:00~12:00(10명이내)  
오후반 14:00~16:00(10명이내)  
교육비 : 20만원 / 문의 : 010-2925-2646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6.10(금)~18(토)/7.8(금)~16(토)  
효소단식 : 7.21(목)~24(일)  
문의 :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신자들을 위한 8박9일 생태 연피정(선착순)  
주제 강의: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 7.11(월)~19(화) · 제주면형의집 피정센터  
문의 : 010-3015-018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 6.13~15, 7.3~5, 7.8~10, 7.23~25, 7.31~8.2, 8.6~9, 8.13~16, 8.27~29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접수 : (02)773-1455 / (064)796-4182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

· 7월 개강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사랑의 법, 영혼의 법 : 하느님의 사랑, 성사(이혼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 구약성경 기초 및 문(주원준 박사),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전주희 수사), 육화의 영성 : 일상살아가는 영성과 겸손(손우배 신부)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2 평화의바람(독도&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 8.16(화)~22(일) · 독도&경기/강원 DMZ일대  
대상 : 평화에 관심 있는 20세~30세 젊은이(영어가능자 우대) / 접수 : 6.24(금)까지 메일접수  
인원 : 60명(내/외국인) / 참가비 : 10만원  
문의 : (02)753-0815, http://caminjok.or.kr

**청년 5.18 순례캠프**

주제 : 남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  
대상 : 청년 신자 / 자세한 내용, 기간,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gphf.or.kr) 참조  
문의 : (062)234-2737(광주인권평화재단)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원하는 날 (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가르멜수도회	매월	서울 가르멜 수도원	010-2140-7414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6.11(토) 14:00~12(일) 13:00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6.12(일) 12:00	봉래성당	010-3208-1973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다인요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일산자동차매매상사	미래고속관광	라이프치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마·잡티·여드름·흉주름 개선	시설요양/주간보호/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 상담/신청대행 시설장, 옥 승 우(바로로) 723-6636, 010-6836-0613 부산 기정동 창안로 오리길 376-28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베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테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7월 국내성지순례 1차:7.9(토), 2차:7.16(토) 6시 30분 출발 산악골, 작은재(서천) 전통순교성지, 치명자산성지(전주)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철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재 훈(바로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급구) 743-3334 해운대 31번 중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동아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석사·박사 모집 21세기 유망직업 <음악치료사> 문의 : 담당교수 이지우(마리아) 010-2350-8075	이삿짐은 우리트렌스로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대신동 김스피부과 김형진(멜릭스)·황해령(빨리나)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 전문의 3인 진료 동대신동역 8번 출구 246-9999	미카엘여행사 국내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매주 월요일, 금요일 출발 한국성지167 완주 3박 4일 인천, 의정부 6/27-30 010-8650-9690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카드스저자(수급자무제한,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지하철역 4, 6번출구(인출, 빨간색 간판)